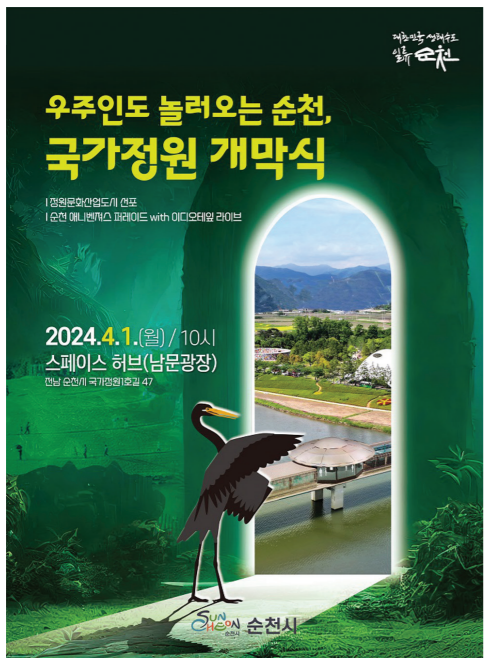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국가정원 4월 1일 열린다

2000여 명이 참여해 ‘애니벤저스’ 초대형 퍼레이드 새로꾸민 스페이스 허브, 정원문화산업도시 도약 선포



순천국가정원이 4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컨셉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4월 1일 오전 10시 순천국가정원 개막식을 스페이스 허브(남문광

장)에서 개최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순천시는 국가 정원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 위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더하고,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디지털적 요소를 덧입히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막은 대한민국 제1호 정원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순천시가 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더해 정원문화 산업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막식이 열리는 ‘스페이스 허브’는 동문과 서문을 잇던 유휴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1만510㎡(4700평)에 달하는 광활한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의 ‘스페이스 브릿지’와 새롭게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는 어린이들의 꿈을 우주로 상징되는 미래로 실어 나른다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은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24개 읍면동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애



4월 1일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을 앞두고 17일 스페이 브릿지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순천시 제공)

니벤저스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정원문화 산업도시 선포식, 어린이·청소년·청년 연합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2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스페이스 허브 활주로에서 펼쳐지는 육상·수상 퍼레이드 폴라보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막식은 정원문화 산업도시라는 순천의 새로운 비전을 널리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순천의 우수

한 아날로그적 정원 위에 문화콘텐츠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4월 1일 개막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관람료는 일반성인 기준 1만 원, 순천시민은 2000원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국내여행, 민고 가져 여수로!” 관광 설명회 개최 서울·경기권 여행자, 관광업체 대상

올해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급증이 전망되는 가운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하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빠른 준비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수원 노보텔 호텔에서 서울·경기권 여행자, 유관기관 등 총 130여명을 초청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수관광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설명회 장소를 수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그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집중된 홍보를 수도권 인접 경기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올해 국내 관광객 확보에 적극 나선 것.

지난 26일 첫날은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관광 킬러콘텐츠와 차별화된 관광지를 소개하고, ‘해양 관광휴양도시 여수’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행사에 함께한 여수지역 숙박·관광시설 11개 업체도 현장에서 현지 여행업체를 상대로 B2B 상담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여수시는 이날 ‘경기도 관광협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며, 경기권 여행사들을 통한 여수로의 관광객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여성 취창업 교실 나를 찾는 퍼스널 이미지 컨설턴트 개강

보성군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직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나를 찾는 퍼스널 이미지 컨설턴트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성군 청소년문화의집 1층 다목적실에서 실시되며, 주 2회 총 30시간 과정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4월 2일까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취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광양국가산업단지상생협의회의와 소통의 시간 가져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광양시는 26일 광양국가산업단지 상생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양국가산업단지 상생협의회장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 장봉수 그룹장과 부회장 조선내화㈜ 정용수 실장, ㈜피앤

오케미칼 유성철 상무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인화 시장은 먼저 “광양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기업이 잘되어야 한다”며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의 노고에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로등 및 CCTV 추가 설치 ▲명당산단 내 방치된 화단을 이용한 노상주차장 확보 ▲도로의 포트홀 문제 및 환경관리 ▲산단 내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장봉수 광양국가산업단지상생협의회장은 “바쁘신 와중에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양시는 국가산단 동호안 부지 규제개선 등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정인화 시장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시에서도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군,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 유용한 정보 제공 받으세요

고흥군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을 현행화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우리 군 40만 필지 토지에 대한 지적도, 도로명주소, 위치에 맞는 항공영상과 비교 열람 등 수수료 없이 각종 토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형 열람 시스템이다.

군은 2016년부터 관내 토지 관련 정보와 도로명주소 열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 총 17개소에 ‘윌터치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손으로 대형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지적(임야) 도면을 부분 확대, 축소, 지도상 거리와 면적 측정이 가능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토지 관련 정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